조선시대 사랑채와 현대주거 내 업무공간의 연계성 연구

Research into the Connections between the Sarangche of the Chosun Dynasty and Modern Residential Work Spaces

노진희*
Noh, Jin-Hee

최경란**
Choi, Kyung-Ran

성윤정***
Sung, Yun-Jung

Abstract

Residential space has come to maintain a degree of specialization dependent upon the division of space according to function, while roles and functions have either expanded or ceased to exist corresponding to shifts in social values. However, various human behaviors connected to lifestyle habits and values are in fact becoming obsolete. This research will examine the mental, social, and functional aspect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ial work spaces in modern homes and the sarangche as well as the communal space of daily and social life of the Chosun Dynasty to enhance the value and function of traditional residential space. As the boundary between family and work blurs with the home office environment of today, we are experiencing a deterioration of health and seeing problems in securing family domain as well as the prolonging of overwork. While the function of the traditional sarangchae encompassed a wider variety of activities than today's homes, the sarangchae achieved an efficient use of space divisions between rooms according to the particular purpose and situation. Accordingly, a reinterpretation of modern residential work space is needed through its connection to the sarangchae with consideration to the philosophy and values of the life of the noble class and the habits of our traditional lifestyle that have previously taken place within the sarangchae in an exterior space.

Keywords : Culture, Tradition, Residential Environment, Work Space, Activity at Home

주요어 : 문화, 전통, 전통주거, 업무공간, 주거 생활

I.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주거문화는 시대 변화에 따른 시대상을 반영하고 새로운 생활문화를 만들어낸다. 오늘날의 주거는 현재의 생활상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내려온 관습과 습관, 즉 생활양식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화되며 발전되고 있다. 전통사회는 가부장제도에 따라 가장을 중심으로 주거 내에서 자급자족하는 농경 중심의 문화였다. 산업화가 되면서 가장은 직장을 갖고 사회로 진출하게 되었고 주거의 관리와 사용은 주부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로 현대 주거공간은 전통 주거공간에서 담당하던 공적인 사회생활의 기능이 점차 축소되었고 가족의 휴식 공간인 사적 기능이 중요시되고 있다. 가족중심의 주거는 정보화 기능이 도입되면서 재택업무가 가능한 주거공간으로 발전되었다. 정보화 기술의 발달로 주거공간은 출퇴근

에 제약을 받거나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하고자 하는 근무자에게 새로운 업무 공간 형태의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 대부분의 재택근무자는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함께 자기 개발을 중요시하며 정신적 건강과 여유 있는 삶을 지향한다. 이러한 삶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불편하고 기능적이지 못하다는 편견으로 외면되었던 전통주거에 대해 자연과 함께 더불어 생활하며 건강한 마음과 풍요로움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제 조명 받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대 주거 내 업무 공간 또한 변하지 않고 내려오는 우리의 전통적인 생활습성과 함께 자연을 추구하는 생활 신념이 고려된 사랑채 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시각의 해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사랑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지역에 따른 배치와 유형 그리고 공간 구조에 대한 연구로 오늘날의 주거공간과의 연계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주거 내 업무공간의 기능을 조선시대 사랑채에서 이루어졌던 업무개념과 연관하여 그 연계성을 보고 현대주거 내 업무공간에서 재고되어야 할 개념과 가치를 찾는 것에 목적이 있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전통주거에서 유가사상의 영향에 따른 사랑

*정회원(주저자),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대학원 실내디자인 전공, 박사수료

**정회원(교신저자), 국민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정교수

***정회원, 국민대학교 동양문화디자인연구소, 전임 연구원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411-J05001)

채의 역할과 기능의 부각을 통해 오늘날 주거 내 업무공간이 지녀야 할 특성을 연구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거 내 업무환경은 일을 위한 공간만이 아닌 일과 함께 동반되는 행위를 함께 만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첫째, 전통 주거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공간의 사용 행태와 조선 시대 사대부의 주요 덕목인 봉제사 접빈객을 중심으로 한 주거 생활의 주요 기능을 알아본다. 둘째는 조선 시대 사랑채의 유형, 배치, 기능에 대해 정신적, 사회적, 기능적 측면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조선시대 사랑채의 기능과 사용실태 연구는 과거의 생활행태에 대한 부분으로 연구의 정확성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고서(古書)와 사대부의 생활일기를 통해 그 시대의 생활행태를 유추해 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사랑채가 갖고 있는 정신적, 사회적, 기능적 측면을 현대 주거 내 업무 공간과 연계하여 우리의 전통적 생활 습성을 반영한 공간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본다.

II. 전통 주거의 가치관 변화와 공간 분류

1. 전통주거의 가치관 변화

17세기 이후로 변화된 부계(父系)의 개념은 할아버지에서 아버지 그리고 아들로 이어지며 가장의 위치와 권위가 높아지는 가부장 제도로써 유가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이는 남녀유별, 장유유서, 조상숭배 등 주거공간의 역할과 규모, 배치 등에 변화를 가져온다.

Table 1. Transition of Residential Values from Early to Mid-Chosun Dynasty

Period	Family values	Residential values
Early Chosun period	-Daughters lived in their parents' house with husband after getting married (Wife's parents, grandchildren and wife's brothers).	-Daughters had right to inherit their parents' estate and brought their own servants and assets when getting married. The ownership of the properties of wife and husband was guaranteed separately.
16th Century	-Memorial services for ancestors were held by male and female descendants in rotation. Women had the same authority as men.	-Women and men had the same rights and a <i>sarangbang</i> space is connected to <i>anchae</i> . The spaces for men and women were separated not for sake of discrimination but for efficiency.
Since the mid Chosun period	-Daughters lived with their husband's family after being married (Husband's parents, son, daughter-in-law, son's children and brothers of the head of household).	-The eldest son was responsible for ancestral rites and more rights than younger brothers as well as sisters when distributing an estate.
17th Century	-The authority of men was expanded.	-Living spaces for men and women were separated. -The scale of <i>sarangchae</i> , which was a space for men, was expanded, located at the front area of house and began to include a family shrine.

가장 대표적인 남성 공간인 사랑방은 하나의 독립된 채로 분리 되면서 주거의 전면으로 등장하고 그 크기와 기단 높이를 통해 집안의 위상과 권력을 나타냈다.

2. 전통주거의 공간 분류

조선 시대 사회구조의 기반은 양반 지배체제로써 양반의 주거문화는 유교적 이념과 생활양식을 실천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했으며, 상류계층의 신분에 걸맞은 권위를 표현할 수 있어야 했다. 따라서 조선시대 주거 공간은 유가 사상을 바탕으로 <Table 2>와 같이 계층별, 성별에 의한 관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Table 2. Division of Space by Class and Gender

Space	Class	Gender	Degree of exposure to the outside
Hangrangchae	Servant	Men · Women	High
Sarangchae	Master-Men	Men	Medium
Anchae	Master-Women	Women	Low

먼저 계층에 따른 공간 분류를 살펴보면, 주거 공간의 배치에서 가장 먼저 외부에 노출되는 공간은 노비의 숙소이자 곡식을 저장하고 객의 차등에 따라 묵고 가던 행랑채이다. 이를 지나면 바깥주인의 주생활공간이며 외부의 접견이 이루어지는 사랑채가 자리 잡고 있다. 대부분 사랑채는 기존 마당보다 한두 단씩 들어 올려 그 곳에 거주하는 이의 권위를 높이는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사랑채를 지나 들어오면 외부와는 단절된 배치에 안주인의 주생활공간이며 가사노동의 중심이 되는 안채가 들어난다. 이렇듯 주거 공간 내에서 양반과 노비의 생활공간, 남성과 여성의 생활공간이 구분되어 있으며, 계층에 따라 외부와의 단절과 개방에 차이를 둔 현상을 보여준다.

성별 관점에 의한 공간 분류를 보면 조선 초기 양반주거에서는 안방에서 부부가 함께 취침공간을 사용하고 남성의 휴식과 업무공간으로 사랑방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조선 중기에는 남존여비사상(男尊女卑思想)과 내외법이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부인의 거처인 안채와 남편의 거처인 사랑채가 완전히 분리되는 형태가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채에 공간과 함께 마당 또한 남녀의 사용공간이 달랐는데 사랑채 앞의 사랑마당은 남성의 놀이 및 의례공간으로 사용되었으며 안채의 안마당은 여성의 공간으로 가사 생활의 중심공간으로 활용되었다.

3. 전통주거의 주요기능

조선시대 주거에서는 일상생활과 함께 의례생활과 접객생활이 중요시되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생의례에는 세상에 태어나기 전 부모의 기자(祈子)로부터 출생, 성년, 혼인, 회갑, 죽음과 죽은 후의 제사에 이르기까지 치르는 의례가 포함된다.¹⁾

혼례는 진행되는 단계마다 사당에서 조상의 신주께 자녀의 혼사를 고하는 절을 하고 의식행사가 있을 때에는 안마당과 사랑마당에 차일(遮日)을 치고 의식공간으로 이

1) 한미라 · 전경숙(2004). 한국인의 생활사. 일진사, 164

용한다. 즉 사랑마당에는 전안청(奠雁廳)이 마련되고 안채 안대청에는 초례청(醺禮廳)을 마련한다.

상례는 일생의 의례 가운데 마지막 의례로 신분과 계급에 따라 부르는 말과 기간 형식에서 차이가 있었다. 탈상이 끝나고 나면 사당 신주에 죽은 이의 이름을 넣어 봉안하게 된다. 제사 장소는 대청에서 했는데 조선 초기에는 별도로 사랑채가 없었으므로 안방과 사랑방이 있는 대청을 이용하였고 마당에 햇불을 피우고 대청에 병풍을 두르고 자리를 깔아 지냈는데, 날이 추우면 방에서도 지냈다. 별도의 사랑채가 생기면서 사랑채의 대청을 제청으로 사용하였다. 정찬권(2003)이 풀어쓴 미암일기를 통해 주로 새벽에 일어나서 날이 밝기 전에 지냈음을 알 수 있으며, 제사를 지내기 전날에는 제계를 이유로 가능하면 손님을 접대하지 않았고, 나라의 관리들은 제삿날에는 출근도 하지 않았으며, 목욕이 일상화되지 않았던 시기였으나 제사를 위해 특별히 몸을 청결히 하며, 며칠 전부터는 합방도 하지 않고, 육식하지 않으며 소식을 했음을 알 수 있다.

“1568. 5.14 파루를 치기 전에 일어나 머리 빗고 세수하고 관 쓰고 띠 띠고 지방과 축문을 쓰고 먼동이 틀 무렵에 조부와 부친의 양위 등 4대의 제사를 지냈는데 제물이 꼭 갖추어져 호뭇했다.

그는 제사가 있는 날이면 향사 이틀 전부터 육식을 하지 않고 물을 만 밥에 오이, 생각, 감치를 먹으면서 소식을 하였고 하루 전에는 부인과 떨어져서 잠을 잤다. 또 여름에는 “나는 냉수로 목욕을 했다. 제계를 하기 위해서이다.”²⁾

마지막으로 조선시대 주거의 기능 중 접견은 양반 즉 사대부에게 매우 빈번하면서도 중요한 의무였다. 접견 공간으로 가까운 일가친척은 안채를 이용했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랑채에서 접견했다.

또한 접객이 머물고 가는 공간은 일시적 객, 단기적 객, 장기적 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은밀한 만남이 필

요할 때에는 안 사랑채나 별당 등 별도의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주택에서는 주로 사랑채의 대청, 사랑방, 여름에는 누마루가 사용되었으며, 독립된 건축물인 누각(樓閣)이나 헌(軒), 당(堂), 정(亭), 정사(精舍) 등 다양하게 이용하였다.

<Table 3>과 같이 일상생활은 안채의 가사활동을 중심으로 모든 공간에서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반면 의례와 접객의 기능은 사랑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공적기능과 사적기능의 공간사용 구분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랑채는 공적인 기능을 수용하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III. 조선시대 사랑채의 역할 및 기능

1. 사랑채의 정신적 측면

조선시대의 사랑채를 사용하는 양반 즉 선비들은 성리학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주택을 건축하는 데 있어 풍수지리와 양택론의 정신적 상징체계를 반영하였다.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은 “자연”을 중요시 하여 인성 함양의 척도로 대하게 되며 심리적으로 감상하고 즐기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심성 수양의 표본과 같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성리학자들은 자연관이나 유교이념 즉 독서, 수양, 견문 등과 자연 이치와 원리를 깨닫는데 필요한 것은 곧 사색과 휴식이 필연적인 것이며 더 나은 유교이념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³⁾ 이러한 건축공간의 실현은 정자나 정사뿐만이 아니라 선비들의 주 생활공간인 사랑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근경과 원경의 넓은 조망을 위해 누정과 조화되는 조원(造園)수법이 발달하고⁴⁾ 천원지방(天圓地方)의 우주관을 내포하고 있는 연못을 만들며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지향했다. 또한 사계절의 다양한 변화를 조망할 수 있도록 창호의 개폐방식을 다양하게 하며 때로는 내부가 외부가 되고 외부가 내부가 될 수 있도록 자연의 합일을 중요시 했다. 『오주연문장전산고』의 열두 시간 청취(淸趣)편에서 사랑채에서 행하는 선비의 정신적인 수양을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진시(辰時)에 일찍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앉아 마음을 명랑하게 한 뒤에 호흡을 조절하고 천기(天紀)를 흡수하여, 백탕(白湯)한 사발을 마시고 차는 마시지 말며, 머리를 백여번 빗어서 기(氣)가 소통하고 화(火)가 맑아지고 눈이 밝아지고 뇌(腦)속의 열기(熱氣)가 제거되게 하며, 양치질을 마시고 아침 식사를 하되……식사가 끝난 뒤에 천천히 100보쯤 걸으면서 손으로 배를 문질러 쉬 소화되도록 한다.

사시(巳時)에는 글을 읽되…… 범람하거나 망상하거나 잡담하지 말아야 하고…… 피로해 지면 눈을 지그시 감

Table 3. Main Features of Chosun Dynasty Housing

Function	Activities	Space	Note
Daily activities	Housework	An Madang, Kitchen, An Daecheong, Hangrangchae	Both ancha and sarangchae were used in general (Private function)
	Sleeping	Anbang, Sarangbang	
	Eating	Anbang, Sarangbang	
	Education and hobby	Anbang, Sarangbang	
Ceremonies	Birth	Anbang, Maternity Room	Most activities were carried out in Sarangchae (Formal function)
	Marriage	Anmadang, Sarangmadang	
	Funeral rites	Sarang Daecheong, Shrine	
	Ancestral rites	Sarang Daecheong, Jechong, Shrine	
Reception of guests	Relatives	Anchae, Sarangchae	
	Guests	Sarangbang, Sarang Daecheong, Nugak, Heon, Dang, Jeong, Jeongsa	

2) 정찬권(2003). 홀로 벼슬하며 그대를 생각 하노라. 사계절, 85

3) Kim, S., & Chio, K. (2009). A study on “YuSik” space of jungja architecture in choson dynasty.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5(9), 198

4) 강영환(2003).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209

고 침을 모아 수십 차례 삼켜서, 빈객(賓客)을 대해서도 말을 적게 하여 기(氣)를 길러야 한다.

오시(五時)에는 선향⁵⁾을 한 개비를 피우고 일정한 곳을 맴돌아 기(氣)와 신(神)을 안정시키고 나서 비로소 식사.... 차는 입안을 먼저 씻어 낸 뒤에 마시고 약간의 걸음을 걸으며, 앉았을 적에는 등을 구부리지 말고 가슴이 답답해 질 적에는 기(氣)를 두세 차례 조용히 불어 낸다.

신시(申時)에는 고인(古人)의 득이문 1-2편을 낭독하고 술 몇 잔을 마시되, 너무 많이 마셔서 의지를 흐리게 하지 말며 혹은 명인(名人)의 시(時) 몇 수(首)를 읊조리고 붓을 들어 옛날의 법첩을 모방하다가.....술을 마셔서 진기를 왕성하게 한다.

묘시(卯時) 첫새벽에 일어나 옷을 걸치고 평상위에 앉아 이를 300번 딱딱거린 뒤에 양쪽 어깨를 전동하고 근골을 조절, 음양을 조화 시켜 며, 옷을 입고 자리에 앉아서.....글을 읽고.....꽃에 물주고 대나무를 심으며, 거문고소리를 듣고 학을 감상하며, 향을 피우고 차나 달이며... 바둑에 붙이기도 한다.⁶⁾ 위의 내용을 통해 조선시대 사랑채는 일상생활 공간이면서도 선비들의 내면적인 정서적 수양과 여유가 깃든 곳임을 알 수 있다.

2. 사랑채의 사회적 측면

사랑채의 형태변화는 시대적 사회상을 반영하며 시기에 따라 안채와 연결된 일체형에서 점차 독립된 별동형으로 분화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Table 4>⁷⁾ 초기(16세기)의 사랑채는 안채와 한 몸으로 이루어져 채의 의미보다는 방의 의미가 컸으며 16~17세기로 접어들면서 동일한 채에서 지붕 구조가 분리되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17기 이후에는 안채와 사랑채로 독립된 별동형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러한 사랑채의 분화 과정은 조선 초기 손님을 접대하는 작은 기능에서 점차 규모가 확대되고 세분화되면서 그 기능 또한 남성의 중심공간으로써 가족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⁸⁾ 별동형의 사랑채는 대문을 들어서면 가장 먼저 대면하는 곳으로 가

장의 권위를 표현하는 상징이자 그 집의 품격이 들어나는 곳이기도 하다.

사랑채는 외관의 장중한 모습 연출, 지붕 기둥 형태의 차별화, 창살의 다양한 연출로 다른 공간과는 차별화 되는 형태와 장식을 구사하게 된다. 그 중 무엇보다도 누정(樓亭)을 두는 방식에서 사랑채의 매력이 대부분 결정된다. 앞서 정신적 측면에서 언급하였듯이 누정은 사랑채의 장중한 외관의 표현뿐만 아니라 자연과 가까이 하여 그 이치와 원리를 깨닫는데 중요한 공간이다. 더불어 넓은 시야를 제공하여 행랑마당의 하인들을 통솔함과 동시에 마당에서 우러러 보는 효과를 준다. 사랑채의 높은 기단의 위치는 주거의 출입을 살피는 역할과 함께 조선시대의 사회적인 유교사상인 위계질서에 맞게 표현된 것이다.

사랑채의 기본 구성 요소는 사랑방과 사랑대청이며 점차 수용한 역할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행하기 위해 간 분화·채 분화하며 유교적 원리의 사회적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 Youn(1999)는 『조선후기 상류주택 사랑채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사랑채의 분화 양상을 <Figure 1>⁹⁾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사랑채에 내재한 성격의 반영으로, 장유(長幼)의 분화는 작은 사랑방으로, 공(公)에 대한 사(私)의 배려는 침방 그리고 책방, 상(上)에 대한 하(下)의 분화는 청지 기방, 속(俗)에 대한 성(聖)의 분화는 감실 또는 제청, 고도의 풍류를 위해 별도의 누마루를 구성하였다. 그 연장선상에서 작은 사랑채, 서재, 제청, 별당이 지어졌다. 사랑채는 큰사랑방과 작은 사랑방의 규모, 공간구성, 장소의 좌향에 차이를 두는 장유유서(長幼有序)의 질서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Figure 1. Sarangchae Spatial Division

Table 4. The Division Process of Anchae and Sarangchae

Period	16th Century	17th Century	Since 17th Century
Division process
	All-in-one type (Gwangjaeong)	The roofs were separated type (Chunghyodang)	Annexed building type (Yoonjung's house)

5) 향료(香料)에 가루로 실처럼 가늘고 길게 만든 향.

6) 이규경(2008). 오주연문장전산고1, 민족문화추진회편. 264-267

7) Kim, J. & Joo, N. (1996). A study on the process of partition sarang-chae from an-chae in Korean traditional house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12(2), see pp. 83-84

8) Ibid., pp. 83-84 summary

3. 사랑채의 기능적 측면

조선 시대 여성의 역할이 안채를 중심으로 집안의 생 산품을 만들어 내며 가족을 살피는 것이었다면 남성은 사랑채를 중심으로 외부의 접촉이나 대사회적인 측면의 업무와 관직을 통해 집안의 지위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 조선 시대는 유가 사상의 정신적 측면을 바탕으로 사회적 측면에 따라 조상에 대한 제사와 부모를 봉양하는 봉제사(奉祭祀) 그리고 손님을 접대하며 평생을 지 기들과 교류하면서 사는 접빈객(接賓客)을 주요 덕목으로

9) Youn, L.(1999).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Sarang-Chae of the upper-class house in the late Chosun dynasty. Ph.d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57-64 summary

여겼다. 이는 조선 시대 사대부 남성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며 역할로써 오늘날로 볼 때 주요 업무라 할 수 있다. 사랑채의 기본 구성 요소는 사랑방과 사랑대청으로 사랑방은 대부분 1-2칸 규모로 공동침실이 되기도 하고,

Table 5. Sarangchae Spatial Composition and Representative Features

Function	Space	Description
Daily activities	Sarang bang	-A place in which the head of household dwells. It was a private place in regular days but also could provide a spacious area where father met his sons and guests more efficiently when the doors between the rooms were opened. The entire functions of sarangchae were performed here. -While a mat was laid on the floor in summer, a decorated fancy mattress, an elbow rest and an anseok (backrest) were placed in other seasons. For the decoration purpose, a folding screen was set up or paintings or writings were placed on the wall.
	Sarang dae cheong	-A place in which the owner met friends or guests to have a talk, hold a banquet or have go. -A spare place that had extended sarangbang functions. -This space was mostly used in summer. It was a place whether the owner appreciated the beauty of nature and had a symbolic meaning to show his authority and social position. Ceremonies with a purpose to connect family members together were performed.
	Second sarang bang	-It was a separated room for the eldest son and called the second sarangbang depending on its use or geonneonbang or jungbang depending on its location.
	Chaek bang	-The scale was varied from a library of a noble family to the one composed of 7 rooms. It consisted of places for keeping books and reading. -It was located away from the main sarangbang not to interrupt reading if guests were in sarangchae.
	Chim bang	-A bedroom for the owner, which was located behind sarangbang in most cases. It was a private place that was difficult to see from outside but easy to go to Anchaе. -A chest of drawers was placed at a corner underneath a closet to keep important items. A mattress, jangchim and an elbow rest were placed.
	Butler's room	-A room where servants who took care of guests of owner and were responsible for doing chores lived.
	Jeongji	-Unlike the one in anchaе, it was not related to preparing food. In many cases, it was comprised of only an agungi (furnace) or made as a simple form. Sometimes, it was closely related to the location of the stable because fodder for cows was prepared here.
Ceremonies	Je cheong	-It was a cheong in which ancestral rites were performed. In general, sarangmaru was used for this purpose as well except some mighty noble families that built a separate jecheong to perform large-scale ancestral rites such as bulcheonwi.
	Gamsil	-A place where the family's ancestral tablet was kept.
Reception of guests	Numaru	-The use of this space was exclusive to the head of household. It was not only a space to display the owner's dignity within the house but also a building to show his authority in the town.

사적 생활을 위한 방 사이에 장지문을 두어 큰 사랑방, 작은 사랑방으로 구분 하였다. 사랑채의 공간 구성과 각 공간의 기능은 구체적으로 <Table 5>¹⁰⁾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큰 사랑방은 가장(家長), 작은 사랑방은 장자(長子)가 거주하며 아들은 아버지의 비서와 경호를 위해 대침(待寢)을 하며 서로 호흡을 맞추었다. 큰사랑방의 거주자는 집안을 이끄는 주세대로 가장 왕성한 활동이 가능한 생애 주기에 해당된다. 더불어 부자유친(父子有親)의 반영으로 큰 사랑과 작은 사랑이 인접된다. 가장의 거처인 사랑방은 선비로서 사색, 독서, 시화가 행해지고 후학을 양성하는 학문의 장소이며, 손님을 맞아들이는 대화의 장소였고 때로는 의례가 행사되는 제장이었다. 모든 사랑채의 기능이 집약된 곳이다. 사랑채의 규모가 커지면서 장자를 위한 공간으로 작은 사랑방이 마련되며 아버지는 큰 사랑방에서 아들의 보호와 대접을 받고 아들은 작은 사랑방에서 아버지의 감독을 받으며 긴밀한 부자 관계를 쌓아 나간다.

사랑대청은 사랑방 기능이 분화한 곳으로 집주인의 학습과 휴식이 이루어지는 여유 공간이다. 특히 여름에 많이 사용되었고, 내 외부공간의 매개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사랑채의 권위나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적 공간이자 동족 결속에 의미를 가지는 선비의 이상적인 공간으로 정자(亭子)를 꼽을 수 있다. 정자의 기능은 상류층 지식인의 멋과 생활철학을 충족시킨다. 이러한 정자의 기능을 상류주택 내부로 끌어들이는 공간이 누마루이다. 누마루는 사대부의 사랑채와 별당에만 지을 수 있었던, 가장의 전용공간이자 주택 안에서의 위엄과사의 공간이었으며 마을에서는 권위와 상징성이 어우러진 건물이다.

이러한 사랑채의 기능은 주인의 정치 사회적 위치에 따른 교류를 위해 열린 장소로 주인의 정신적 취향과 안목, 경제적 능력이 과시되었다.¹¹⁾ 집안을 찾는 집객은 대상자에 따라 예우를 달리 했으며 기본적으로 존대와 정성을 기울여 가문의 긍지와 가풍을 세웠다. 또한 장유유서(長幼有序)에 따라 한 공간 내에서도 역할과 지위를 반영하여 사랑방의 아랫목 쪽이 가장의 자리로 고정되는 것이 상례였으며, 대상자의 격에 따라 자리의 위치를 달리 했다.

사랑채에서는 일상생활인 취침, 식사는 물론 과거를 위한 독서, 글쓰기 등의 글공부와, 다도, 명상과 같은 휴식, 외부인들의 접견 등 다양한 생활행태가 한 공간에서 함께 이루어졌는데 아래 『미암일기』와 『초려집』 그리고 앞서 언급한 『오주연문장전산고』의 열두 시간의 청취(淸趣)편 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미암은 비로소 이불을 젖히고 일어나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빗기 시작하였다. …그는 세수를 하려고 대청으로 나갔다. …수건을 건네받아 물기를 닦으면서 말했다. “냉

10) Ibid., pp. 57-64 summary

11) Ibid., p. 48

큼 가서 조반이 어찌 되었는지 알아 보거라” 그리고 나서 서둘러 방안으로 들어갔다... 여중 유지가 조반을 들여왔다.... 미암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사랑방에서 조용히 책을 보고 있었다. ...미암은 아침 일찍부터 책방에서 손님을 접대 하고 있었다. ...어서 술상을 차려 오거라.”¹²⁾

“사랑채는 기와집 3칸이면 족하다고 본다.....나는 사랑채 옆으로 2칸이 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글 읽는 장소로 쓴다.”¹³⁾

미암일기는 사대부의 사랑채에서 의식주에 관한 기본적인 행위가 모두 일어났음을 보여주며 문신이자 학자인 이유태는 귀양살이를 하는 동안 쓴 『초려집』에서는 조선시대 사회를 이끌고 갈 후학을 양성하는 사회화(社會化)의 장소로 또한 앞서 언급한 오주연문장전산고의 열두시간의 청취(淸趣)편을 통해 사랑채는 남성들의 생활공간이면서, 선비로써 사색과 독서 그리고 시화를 즐기며 학문 익히는 장소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Figure 2. Activity Categories of Sarangchae Space

다시 말해서 조선시대 사랑채 공간은 남성의 일상생활 장소이자 교육의 장, 접객의장, 동계(洞契)의 장소, 풍류의 공간으로, 일상과 의례 접견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던 곳으로 <Figure 2> 주인의 정치, 사회적 위치에 따른 교류를 위해 열린 장소이며 주인의 정신적 취향과 안목, 경제적 능력이 과시 되는 곳이었다.

IV. 현대주거 내 업무 공간과 사랑채의 기능

1. 사회적 배경에 의한 현대주거 내 업무공간의 변화

사회 문화적 변화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 주거는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에 따라 주거공간이 소멸되거나 새롭게 형성됨을 <Figure 3>과 같이 알 수 있다.

조선시대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던 의례와 접객공간인 사랑채는 문화주택의 등장과 개량 한옥으로 변화되면서 사랑채의 기능은 점차 축소되어 소멸되고 사랑방 또는 서양주거문화의 응접실로 바뀌었다. 이는 접객 중심의 주거 문화에서 점차 가족 중심의 문화로 바뀌면서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경제 개발기에 들어서면서 주거공간은 일상생활과 접객을 위한 공간이 안방에서 이루지는 안방중심 문화로 나타난다. 이러한 안방중심의 문화는 아파트가 주거의 유형으로 정착되면서 주거내에서도 공·사 영역에 대한 공간 분리가 나타나며, 안방은 사적인 영역으로써 프라이버시를 보호 받고 거실과 서재가 그 기능을 수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는 가족중심의 주거문화는 점차 핵가족화 되는 사회 현상과 함께 의례와 접견 등의 사회적 행위가 주거공간에서 분리되어지는 현상을 가져오게 되었다. 경제발전과 산업의 발전은 삶의 여율을

Figure 3. The Transition of Residence into Work Space

12) 정창권(2003). 앞의 책, 18-146

13) 전남일 · 양세화 · 홍형욱(2009). 한국 주거의 미시사. 돌베개, 111

가져다주었고 자기개발을 위한 삶의 가치관과 질을 높이 고자 하는 욕구를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IT산업의 발달 은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나 일 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통 해 사회생활에 제약이 많은 여성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사 회에 참여 할 수 있는 재택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다. 대 한 주택공사 주택연구소가 조사한 (1999)¹⁴⁾ 자료에 따 르면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대상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 으며 학력은 대졸이상이 76.8%로 이고, 직업으로는 114 번호 안내자와 번역가,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다수를 차지 하고 있었다. 주택유형으로는 아파트가 가장 높았고 재택 공간으로는 작은방(29.7%), 서재/공부방(20.3%), 재택근무 전용실(10.2%)등이 사용되고 있다.

Table 6. Social Aspects of Sarangchae and Modern Housing Work Spaces

Classification	Sarangchae	Work spaces in modern housing
User	Men	Mostly women
Housing type	Sarangchae of Hanok (Korean style house)	Apartment (Small room/Living room)
Social background	An independent space for men based on Neo-Confucianism patriarchal system	It appears thanks to advancement in IT technology
Social functions	A symbolic space in housing where formal social activities were carried out	A new type of work space which is used to prepare entering into society.

이는 사랑채가 남성의 업무 공간이었다며 현대 주거 내 업무공간은 출퇴근에 제약을 받기 쉬운 여성들이 더 많 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사랑채 공간이 성리학 을 중시하는 사회적 배경에 의해 가옥의 상징이자 남성의 대표 공간이었다면 현재 주거 내 업무 공간은 첨단 기 술의 발달로 새로운 행태의 업무 공간 개념을 도입시키 고 사회진출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듯 재택근무 가 보편화되면서 미래 주거 계획에 있어 재택근무 공간 에 대한 배려는 사회적인 중요 요소라 할 수 있다.

2. 현대 주거 내 업무공간에서의 정신적 역할

오늘날 주거 내 업무 환경은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진 출, 고령화에 따른 업무공간의 배려 등 새로운 형태의 사 무 개념 정착 이라는 사회적 측면을 가져왔다. 이러한 사 회적, 기술적 측면의 배경으로 도입된 재택근무 공간은 사회적인 많은 장점을 가져온 반면 주거 내 업무공간이 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단점 또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재택근무 공간은 사랑채와 달리 주거 공간과 업무공간 의 경계가 분리되지 못한 구조로 가족으로 부터의 영역 확보 문제와 지속적인 업무 연장에 따른 건강 악화, 업무

에 대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접촉의 부진 등이 지 적되고 있는 반면 실질적으로 재택근무 공간은 이러한 단 점 보단 업무처리를 위한 효율적인 데스크 탑 위주의 홈 오피스가구 개발에만 치중되어 왔다.

그러나 재택근무자가 증가되고 업무의 기능이 충족되면 서 주거 내 업무환경이라는 특성에 따라 여유 있고 편안 한 업무환경의 질을 높이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되고 있 다. 다시 말해 이는 업무 공간으로서의 생산적인 기능과 함께 전문화된 접견 공간과 여과생활을 위한 공간은 물론 명상, 다도, 생각, 휴식, 등과 같은 자아실현을 위한 공간영역 확대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Table 7. Conscious Aspects of Sarangchae and Modern Residential Work Spaces

Sarangchae	Modern residential work space
A space where the users realize the laws of nature reflected in the Neo-Confucianism scholar's philosophy	Increased desire to raise the environmental quality beyond only work-oriented space (Attempt to nature's features inside the space: rediscovery of ancestors life style)

사실상 오늘날의 주거관은 조선시대의 성리학적 사상과 철학적 상징체계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기능적이 고 외형적인 측면으로만 급격하게 발전된 주거문화 속에 서 우리는 내면적인 풍요로움을 얻고자 지속적으로 무엇 인가를 요구하며 우리정서에 맞는 것을 찾고 있다. 그 대 표적인 예로 1993년 선보인 승효상씨의 수졸당 <Figure 4>은 전통주거의 사랑채를 통해 외부의 자연을 내부로 끌 어들였다.

Figure 4. Sujoldang First Floor Plan

수졸당은 「옛」과 「현대」가 서로 만난 “선비풍 공간 건축”이라 소개되었고, 그는 그의 작품에 대해 “우리네 朝鮮朝의 선비들이 빛은 都市와 建築은 어떻게 저토록 높은 격조와 품격을 가졌었나. 그것의 바탕은 물질보다는 정신 에, 욕정보다는 이성에 더욱 가치를 둔 淸貧의 정신이었을

14)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1999.5). 가사 · 생활일체 및 재택근무 형 주택 개발 연구(연구-99-25). 대한주택공사. 263

터이며, 그의 위에 선비정신은 朝鮮朝 5백년을 지탱케 하여 우리의 뿌리가 되어있음을 다시 기억해 내어야 하지 않을까.”¹⁵⁾ 한다. 라고 설명하였다. 수졸당은 그 동안 서구공간과 생활방식에 무의식적으로 길들여진 우리의 주거문화에 전통에 대한 향수를 불러 일으켰다.¹⁶⁾ 이는 오늘날에 있어 자연을 대하는 우리의 정서와 전통공간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중요시 되고 있다는 증명이기도 하다.

3. 현대 주거 내 업무 공간의 기능

대한 주택공사 주택연구소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재택 공간 내에서 또한 ‘작업 및 근무’ 이외에 휴식, 취침, 음악 감상, 식사 등 다양한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

거 내 업무 공간 역시 단지 업무만이 아닌 함께 동반되어지는 행위들도 함께 만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때로는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으로 때로는 타인과의 어울림이 가능한 공간으로 재인식 하고자 한다. <Table 8>은 전통 주거공간과 현대주거 공간에서의 공간별 기능을 사랑채와 현대의 업무공간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았다. 전통 생활공간에서의 남성의 업무에 해당하는 의례와 접객을 위한 주거공간의 사용은 일상행위를 위한 것보다 그 기능과 환경이 중요시되어 사랑채를 중심으로 주거 내에서 모두 이루어졌다. 그러나 생활공간이 현대화 되면서 생활의 범주에서 중요도가 희석된 것 또한 의례와 접객의 공간이다. 반면 생활행위인 식사, 취침, 가사는 현대 주거공간에서도 일상생활로 나타나며 공간의 복합적인 사용성 또한 전통

Table 8. Lifestyle Comparison between Traditional and Modern Housing

Traditional Housing		Daily Activities	Modern Housing	
Description	Space		Space	Description
Meals were presented on small portable dining tables individually based on gender and positions in family. The dining tables for guests in higher position were set in ‘sangseok (upper seat)’.	Anbang	Eating	Dining room	Entire family members have a meal together on a table.
	Sarangbang			
There was difference between genders. The potable small-scale furniture used during the day was replaced with furniture for sleeping.	Anbang	Sleeping	Bedroom	In general, parents and children have separate and private rooms that were mainly used for sleeping.
	Sarangbang			
Storage, preparing food materials and cooking	Kitchen	Houseworks	Kitchen	Preparing food materials and cooking
Expansion of work areas and used for drying food materials	Madang			
A key place for women to perform houseworks	Anbang		Living room	Clearing up laundry, cleaning and doing other house chores
Used as a supportive space for cooking and houseworks	Dacheong		Veranda	Preparing food, storing food materials and doing laundry
Political meetings, supervising house works and studying for the government examination	Sarangbang	Works	Living room or exclusive work space	Home office space
	Numaru			
Boys and girls were taught separately in sarangbang and anbang, respectively.	Anbang	Education	Children’s room	Children’s study
	Sarangbang		Study	
Space for meditation, tea ceremony and other personal hobbies such as poems, painting or writings	Anbang	Hobby	Living room	Space for various hobbies including watching films, doing exercise, reading and painting, which can be conducted in a place dedicated for such activities.
	Sarangbang		Study/ Work space than housing	
Different seats were given depending the positions in family and society.	Sarangbang	Reception of guests	Living room	Guests for the entire family
Space where a feast for guests was held	Daecheong		Study/ Work space	Space to meet work related guests or guests who came to meet the head of house
Separated and private space	Numaru		A place outside the house	An outside space is used depending on the type of guests and situation.
The space underneath the ceiling of andaechong was used for keeping portable dining tables and items used for ceremonies and ancestral rites. Anmadang was also used for marriage.	Anmadang /Daecheong	Ceremonies	A place other than housing	Being selective depending on religion
	Sarangmadang/ Daecheong			
Ancestral rites were performed in a separate place	Shrine	Ancestral rites		
Ancestral rites were performed in housing with multiple functions	Sarang daecheong			

15) 노재덕(1993.9.24). 현대건축산책. 경향신문, 11

16) 전남일 · 손세관 · 양세화 · 홍형옥(2008). 앞의 책, p. 317

주거와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전통 주거의 업무 행위가 일어났던 사랑채와 현대 주거 내 업무공간의 기능을 비교해 보면 사랑채에서는 업무 이외의 다양한 행위들이 가변성 있고 자유롭게 일어나는 반면 재택근무 실은 업무 중심의 공간으로 사적인 접견과 약간의 취미 활동을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전통주거의 생활행위는 현대 주거공간에 비해 동일한 공간 속에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 일상의 행위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사랑방은 끼니때는 식사를 하는 식당이 되고 낮에는 자녀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습공간이 되며 밤에는 잠을 자는 취침 공간이 된다. 이는 좌식생활의 전통주거 문화에서 이동이 편리한 소 가구들을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행위에 따라 가구를 이동하고 응용하여 사용하는데서 가능해진 행태라 사료된다.

반면 오늘날의 주거는 좌식과 입식이 공용되고 있으며 특히 업무공간에서는 입식 형 오피스 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정된 공간 내에서 좌식형의 소형 가구와는 달리 자유로운 가구의 이동과 기능 변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업무공간에서의 복합적인 공간 사용의 행태는 현대주거와 전통주거가 흡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기능별 공간 구분과는 무관하게 전통 생활양식의 행위가 현대 주거공간에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공간 분할에 있어 현대 주거 내 업무공간은 재택근무 행위와 동반되어지는 휴식이나 접대 등의 다양한 행위들을 수용하기엔 공간적인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주거공간을 전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현상을 초래하여 주거의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며 업무의 효율성 또한 저하 시키고 있다.

반면 사랑채는 소통의 장으로서 일상의 공간과 업무 공간이 복합되어 있으면서도 일상생활과 사회적인 접객의 장이 잘 분리된 기능을 가지고 있어 때로는 사적인 공간으로써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으로, 때로는 공적인 공간으로 타인과의 어울림이 가능한 공간으로써의 기능을 모두 수용하고 있다.

Table 9. Features of Sarangchae and Modern Residential Work Spaces

Sarangchae		Work space within residential area
Type	Independent	Sharing other space/ independent type in residential area
Activities performed	Eating/sleeping/ working/learning/doing hobby/reception/ family meeting/ marriage/ancestral/rites	Eating/sleeping /working/doing hobby
Space used depending on activities	Based on sarangchae (Sarangchae: sarangbang/daecheong/numaru, shrine)	Entire space of housing is used (Kitchen, dinning area, bedroom, study, living room, children's room and spaces other than housing, which are dedicated to certain purposes)

미래주택에 대한 재택근무자들의 공간선호를 보면 업무의 효율성과 가사활동의 분리를 위해 타 공간과 공유형이 아닌 전통주거의 사랑채와 같은 독립형 재택근무공간을 요구하고 있다.

Figure 5. Korean Style Apartment Plan for Home Offices (Kim Jungheon, 1998)

<Figure 5>는 전통주거의 사랑채와 안채의 의미를 사회적 공간과 가정적 공간으로 재해석하여 제안한 김종현의 재택근무를 위한 한국형 아파트이다. 사랑채는 주거에 있어서 사회적 기구 내지는 조직을 보안해 주는 반사회적 공간(semi-public space)으로 정의하고, 전통주거의 공간 구성이 주거 내에 사회적 기능을 포용하고 있는 매우 진보적인 공간구성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를 통해 재택근무를 위한 미래주거로서 한국 전통주거의 가능성을 찾아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¹⁷⁾ 그는 업무공간의 출입을 주거공간과 분리하여 별도의 현관으로 마련하고 내부는 발코니를 통해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안채와 사랑채의 개념을 평면에 도입시켰다. 이는 전통주거에 대한 기능적 측면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시도로 보인다.

그러나 전통주거의 외형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사랑채 기능에 대한 가치와 의미 해석을 통해 현대 업무공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각도가 필요하다.

V. 결 론

오늘날 주거 생활양식은 서양의 입식 생활문화 도입과 산업의 발달로 인해 과거의 전통주거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편리하고 기능적이며 세련된 주거공간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주거문화는 우리 것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척으로 전통 주거 공간과 함께 그에 담겨져 있던 사상과 철학 또한 외면 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거공간으로 하여금 삶의 여유와 정서적인 풍요로움을 담기 보다는 외형적 모습과 기능적인 부분에 치우쳐 발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7) 박기중(1998.3). 재택근무를 위한 한국형 아파트. 현대주택, 109.

따라서 본 연구는 주거 내 업무공간이 전통주거의 사랑채 공간의 사용 개념과 비교해 볼 때 삶의 방식과 생활양식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우리선조가 추구하던 마음가짐과 수양, 생활의 기본 신념과는 매우 흡사하다는 전제 아래 현대 주거 내 업무 공간과 사랑채에 대해 정신적, 사회적, 기능적 측면에서의 연계성을 알아보고자 했다.

정신적 측면에서 사랑채는 조선시대 성리학적 유가 사상에 입각하여 자연으로부터의 이치를 깨닫고 자연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고려하였다. 반면 현대 주거 내 업무 공간에서는 업무기능 위주 환경으로 정신적 측면은 고려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 위주의 업무환경은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며 조선시대에 추구했던 주거의 환경적 측면에 대한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 본 조선시대 사랑채는 사회적으로 가부장제도에 입각한 남성 공간으로써 대외적인 사회 활동의 공간이며 가옥의 위상과 권위를 들어내는 공간이었다. 반면 현대 주거 내 업무공간은 남성을 비롯하여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가정의 경제적인 이익창출과 함께 새로운 사회활동의 통로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랑채와 현대 주거 내 업무 공간은 전혀 다른 공간 구성을 하고 있다. 반면 그 공간에서 요구되어지는 기능과 성격은 공적 영역과 사적영역이 함께 공존하며 다양한 행위가 수용되어지는 점에서 조선시대 사랑방과 현대 주거 내 업무공간의 기능이 흡사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주거 내 업무 공간은 고정된 입식형의 오피스 가구들과 평면구조로 인해 사랑채와는 달리 다양한 행위를 수용하기에는 공간 사용 방법에 있어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사랑채의 기능은 오늘날의 주거보다 더 다양한 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기능과 조건에 따라 체계적인 간의 공간 분류와 채의 확장 그리고 간과 간 사이의 다양한 개폐 방식, 가구의 다양한 사용등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이 이루어졌다.

이를 종합해 보면 공간 분류의 유형은 과거와 현대공간이 명확하게 다르나 요구되어지는 기능과 성격은 사회생활과 개인생활이 함께 공존하며 학문과 정신적인 측면이 함께 이루어졌던 조선시대 사랑채와 현대 주거 내 업

무공간이 흡사한 성향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대 주거 내 업무 공간에서 또한 우리의 생활 습성을 고려한 공간으로 해석되어 다양한 행위가 유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시 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강영환 (2003).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 서울: 기문당.
2. 노재덕 (1993. 9. 24). 현대건축산책. 경향신문, p.11.
3.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1999.5). 가사.생활일체및 재택근무형 주택 개발 연구(연구-99-25). 대전: 대한주택공사
4. 박기중 (1998. 3) 재택근무를 위한 한국형 아파트계획안. 현대주택. 108-111
5. 이규경(2008). 오주연문장전산고1. 파주: 민족문화추진회편.
6. 이복규 (2007). 한국전통문화의 이해. 서울: 민속원
7. 전남일 · 손세관 · 양세화 · 홍형옥 (2008). 한국 주거의 사회사. 파주: 돌베개
8. 전남일 · 양세화 · 홍형옥 (2009). 한국 주거의 미시사. 파주: 돌베개
9. 정창권 (2003). 홀로 버슬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 서울: 사계절.
10. 한미라 · 전경숙 (2004). 한국인의 생활사. 서울: 일진사.
11. Choi, K., Noh, J., & Joung, J. (2007. 8). Direction for the LDK Space Design through Korean domestic living environment. *Preceeding of 2007 IASDR*, Hong Kong.
12. Kim J., & Joo, N. (1996). A study on the process of partition sarang-chae from an-chae in korean traditional house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12(2), 81-89.
13. Kim, S., & Chio, K. (2009). A study on "YuSik" space of jung-ja architecture in choson dynasty.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5(9), 197- 204.
14. Youn, L. (1999).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Sarang-Chae of the upper-class house in the late Chosun dynasty*. Ph.d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15. Yun, S., & Choi, K. (2003). Comparative Study on Korean and Chinese Housing Based on Cultural Patterns- From the 15th Century to the Present. *Asia Design International Conference, Vol 1*. Japan.

접수일(2011. 6. 24)
수정일(1차: 2011. 9. 7)
게재확정일(2011. 9. 22)